

2012 8. 05 연중 제 18 주일

제 1 독서 : 탈출기 16,2-4. 12-15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제 2 독서 : 에페소 4,17.20-24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복음 : 요한 6, 24-35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베이커스필드 성클레멘테성당 : 본당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오늘 제 1 독서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하고 외치는 이스라엘인들은 왜 이집트땅을 떠나 왔습니까?
자유와 그들의 하느님을 섬기기위하여서가 아니였습니까? 더군다나 떠나오기 전 그들은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배가 고프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두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하며 모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부님들이 모이면 하는 이야기 중에 어떤 신부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기도회 모임에 신자들이 모여서 함께 체험 나눔을 하곤 하였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환청 환시를 경험한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일상 삶의 모습 안에서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기도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본당 신부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여 문제시 삼고, 그래서 70 이 넘으신 노사제의 마음에 상처를 입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천사 루치펠을 보십시오. 그는 대천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반항하여 반기를 들고 악마의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느님 없이 내 힘으로 모든것을 할수 있다는 자만심 때문에 천사의 신분에서 악마의 우두머리가 되고 말은 것입니다.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 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알면 알수록, 신앙 체험를 하고 그래서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의기 양양하여져 더욱더 위로 올라가 다른이를 짓밟는 본성이 있는 듯 싶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느님께 반기를 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배불리 먹을 수있는 고기와 양식을 베풀어 주시면서 다시 **내가 너희의 하느님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역시 제 1 독서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 너희는 썩어질 음식을 위하여 힘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러면 내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식주를 해결해 달라고, 즉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쓰고, 자식이 공부 잘하여 좋은 학교에 다니고, 졸업후 좋은 직장잡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등등 등? 이런 것들일까요?

오늘 복음에서 “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 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는 영원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분이 가르치시는 그분의 계명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요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중의 하나는 정신세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때는 개똥 철학일망정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의 젊은세대는 생각하는 일에 몰두하는 일이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아이폰이다 스마트폰이다하여 찍는일에

물두한 나머지 이제 정신세계는 죽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정신세계를 다시 살려 내는 것이야말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풍부하고 돈이 흘러 넘치는 듯이 보이는 라스베가스에도 홈리스피플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구니를 드려다 보면 이곳의 홈리스피플들이 구걸하는 바구니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렇게 돈을 물쓰듯이 흥청망청 쓰는 그곳의 홈리스피플이 구걸하는 그 바구니 안은 텅 비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잘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배고픈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내 가정 안에서 의식주문제가 해결되고 사랑할 사람도 있고 사랑받을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나는 행복합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그렇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고 내 자신에게 되물어 볼 때 하느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요술쟁이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복음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드리도록** 미사중에 기도 드립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주리라.>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16,2-4.12-15

그 무렵 2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3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4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12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13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14 이슬이 걷힌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15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야?”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합니다.>

▣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4,17.20-24

형제 여러분, 17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20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21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22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 버리고, 23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24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6,24-35

그때에 24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르나움으로 갔다.

25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빠,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26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27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28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29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30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31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3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 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33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34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